

어머니를 위한 상담활용 부모교육(CUPEM) 프로그램의 효과*

The Effectiveness of the Counseling-Utilized Parent Education for Mothers (CUPEM)*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김진이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정문자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
Researcher : Kim, Jiny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
Professor : Chung, Moon Ja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CUPEM 프로그램 모형 | V. 논의 및 제언 |
| III. CUPEM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ounseling-Utilized Parent Education for Mothers (CUPEM). CUPEM was developed based on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s, Solution-Focused Therapy, Satir's Experiential Family Therapy, an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The subjects were 51 mothers of 4 and 5 year old children and randomly assigned either to the intervention group (n=26) or the comparison group (n=25). Mothers in the intervention group had 10-2 hour intervention sessions while those in the comparison group received the intervention after this study was completed. Both groups received pre-and post-test evaluation, and a follow-up test.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paired t-test.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ting mothers' parenting stress was lessened while sense of parenting competence and positive maternal behaviors during mother-child interaction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Second, these mothers' self-confidence and maternal attitude toward childrearing were improved. Third, this effect lasted for at least one month after the termination of this program.

주제어(Key Words): 유아 어머니를 위한 상담활용 부모교육(Counseling-Utilized Parent Education for Mothers: CUPEM), 양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부모 유능감(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의 행동(maternal behaviors in mother-child interaction)

Corresponding Author: Jiny Kim,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udaemon-ku,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6483
E-mail: jiny29@korea.com

* 2005년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I. 서론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삶의 한 과정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와 적응을 필요로 한다. 부모가 되면 역할과 관계상의 변화를 겪게 되며, 그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다.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교사로서 자녀의 사회화를 비롯하여 학교와 사회생활에 기초가 되는 정서적·정신적 토대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갖게 된다. 특히 유아는 환경에 가장 민감하고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결정적 시기에 있으므로 이 시기의 부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유아 부모의 역할 수행에 유의한 위협요인으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보호요인으로는 부모의 유능감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부모의 지지적인 행동들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부담감은 부모에게 어려움을 주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Crnic & Greenberg, 1990). 부모의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기 쉽고 그 결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현미, 도현심, 2004). 또한 부모의 유능감은 부모역할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능력인데 유능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협력적이고 애착 행동을 많이 보이며(Bogenschneider, Small, & Tsay, 1997), 유능한 부모 아래서 자란 아동은 학업에서 성취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유능하며 또래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에서 긍정적인 행동 평가를 받는 경향을 보였다(Driessen, 2003). 그리고 부모-자녀 상호작용시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발달과 관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동의 인지 기술(Leseman & van den Boom, 1999), 행동발달(First & Way, 1995), 및 사회적 능력(권연희, 2002)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30여년간 부모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많은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실시되어 왔다. 부모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을 받는 예가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방법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가 하는 점과 연구대상의 인식의 변화에 초점을 둔 광범위한 관점에서 살펴볼아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부모교육은 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가 목표가 되며 참여의 증거는 프로그램 효과의 의미있는 지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연구에서 낮은 수준의 부모참여도와 높은 탈락률(8-48%)이 연구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First *et al.*, 1995).

한편 최근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학문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Vig와 Kaminer(2003)는 유아기 자녀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은 유아의 건강과 행복

을 촉진하고 적응적 부모역할과 가족 기능의 향상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Doherty(1995)에 의하면 부모교육은 성인교육의 일종으로 인지적 측면과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요소가 복합되어 있으므로 이 두가지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 유아에게 결정적인 환경이 되는 부모의 욕구를 반영하고 부모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는 시도는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모역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양육 스트레스, 부모 유능감, 그리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통계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개인적 경험의 의미를 강조한 해석학적 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어머니를 위한 상담활용 부모교육(Counseling-Utilized Parent Education for Mothers: CUPEM)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부모 유능감을 향상시키며 결과적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지지적인 행동을 하도록 돕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며, 이차적인 목적으로는 CUPEM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이론인 발달에 적합한 실제와 가족상담이론인 해결중심 치료, 사티어의 성장모델,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를 토대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참여한 어머니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조사해 보는데 있다.

II. CUPEM 프로그램 모형

본 연구자가 발전시킨 CUPEM 프로그램은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1년간 정문자, 전연진과 김진이가 개발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집단 프로그램과, 정문자와 김은영(2004) 그리고 정문자, 김진이와 이현주(2005)의 이혼한 어머니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통합적 집단치료 프로그램에 기초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은 가족상담 모델인 해결중심 치료와 Satir의 성장모델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에 기초하여 부모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프로그램의 기본 틀인 상담적 접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여한 어머니의 욕구를 반영한 유아교육적 접근을 포함하여 발전시켰다.

1. CUPEM 프로그램의 목적

본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부모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 스트레스 감소, 부모 유능감 증진, 어머니의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질과 행동문제에 따른 양육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어머니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탐색하게 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둘째, 양육실제에 적용가능한 유아의 발달적 특성, 유아를 효율적으로 훈육할 수 있는 기술, 자녀의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머니의 유능감을 향상시킨다.

셋째, 바람직한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모델을 제시하고 가정에서 이 행동들을 실천해보게 함으로써 어머니의 긍정적인 행동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CUPEM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제와 목표

본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주제와 목표는 <표 1>과 같다.

3. CUPEM 프로그램의 구성

CUPEM 프로그램은 총 10회,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초기단계(1회~2회)는 관계형성과 목표설정 초점을 두면서 양육행동과 유아발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중기단계(3회~8회)는 부모역할 증진을 목표로 하여 어머니 자신과 자녀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양육기술의 효과적인 훈련을

위하여 주제별로 구성된 활동들을 실시하였다. 말기단계(9회~10회)는 종결을 준비하는 단계로 참여자들의 문제해결력 증진, 변화의 확인, 및 유지와 또 다른 변화를 위한 방법의 모색을 지지하는 활동들로 이루어졌다.

CUPEM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회기의 도입부에는 '감정과 생각 표현하기'와 '과제 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감정과 생각 표현하기'는 Satir가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활동으로 참여 어머니들은 한 주간의 생활속에서 경험한 감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해결중심 치료기법인 '과제 확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기술들을 실천해 본 경험들을 보고하며 교육자를 포함하여 참여 어머니 모두가 조언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게 되어 자존감 향상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각 회기의 전개부에서는 발달에 적합한 실제와 Satir의 성장모델 이론에 근거하여 각 회기별로 주제를 설정하였다. 우선 그 주제와 관련된 이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활동을 통하여 그 주제와 관련된 참여 어머니의 경험을 이끌어내어 자신들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토론과정을 통하여 참여 어머니들은 자신의 문제를 일반화하였고 다른 참여 어머니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 교육자는 주제와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앞서 나눈 경험과 더불어 정리해주고 때에 따라 역할극을 통해 배운 기술을 익히도록 하였다.

각 회기의 마무리 부분에서는 해결중심 치료기법인 개인

<표 1> CUPEM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제와 목표

단계	회기	주 제	목 표
초기	1	부모의 양육행동 재정립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간 친밀감을 형성한다. •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재정립한다.
	2	유아의 발달적 특성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발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 유아의 놀이에 대해 이해한다.
중기	3	유아의 기질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기질을 이해한다. • 기질에 따른 양육행동에 대해 살펴본다.
	4	부모 자신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는 메카니즘에 대해 이해한다. • 부모자신의 신념을 파악한다.
	5	감정의 조절과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한다. •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대처한다.
	6	유아 부모의 상호작용 기술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부모의 상호작용 행동 유형에 대해 알아본다. • 유아-주도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기술을 익힌다.
	7	한계 설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육의 실제에서 '한계 설정하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한다.
	8	유아의 행동문제 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행동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부모의 역할에 대해 탐색해 본다.
말기	9	문제해결력 증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을 학습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10	부모역할 다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습득한 부모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변화를 인식한다. • 변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과 전체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당일 활동을 통해서 참여 어머니들이 보여준 구체적인 행동을 근거로 격려를 하여 부모역할에 자신감을 심어주며, 학습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과제를 주어 지속적인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였다. 또한 과제로는 발달에 적합한 실제 접근으로 '자녀와 특별한 시간 갖기'가 있는데 부모는 그 시간에 자녀와 무엇을 했는지, 자신이 배운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특별한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III. CUPEM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표 2>와 같이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방법을 기초로 하여 추후검사를 추가하였다. CUPEM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에 각각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개월 후에 추후검사를 실시했다.

<표 2> 연구의 설계

집 단	사전 검사	부모교육	사후 검사	추후검사
교육집단	○	○	○	○
비교집단	○		○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만 4, 5세 유아의 어머니 51명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집단에는 26명이, 비교집단에는 25명이 배정되었다. 서울의 중류층 가구가 밀집된 곳에 위치한 유치원 세 곳을 임의 선정하여 각 유치원 원장을 통해 만 4, 5세 유아를 가진 가정에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문을 보낸 결과, 어머니 56명이 참가의사를 밝혔다. 우선배정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두 교육기간의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어머니 9명은 그들이 원하는 기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집단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인 자료 분석에서는 교육집단 어머니 26명과 비교집단 어머니 25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는데 교육집단 어머니 가운데 출석률이 70%미만인 4명의 자료와 사후 비디오 촬영을 거부한 1명의 자료는 제외되었다. 한편 비교집단 어머니들에게는 모든 연구가 끝난 후에 부모교육이 실시되었다. 교육집단과 비교집단 어머니의 특성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어머니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면에서 교육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30대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교육집단 100%, 비교집단 92%). 학력면에서도 두 집단 모두 과반수가 이상이 대학 학력 이상 소지자였으며(교육집단 57.6%, 비교집

<표 3>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N=51)

구 분	교육집단 (n=26)	비교집단 (n=25)	빈도(%)	
			빈도(%)	빈도(%)
어머니	연령	20대	0(0)	2(8.0)
		30대	23(88.5)	23(92.0)
		40대	3(11.5)	0(0)
	학력	고졸	6(23.2)	4(16.0)
		전문대졸/대학중퇴	5(19.2)	4(16.0)
		대 졸 대학원이상	14(53.8)	15(60.0)
	직업	가정주부	1(3.8)	0(0)
		판매/서비스	1(3.8)	4(16.0)
		사무직	0(0)	1(4.0)
		관리직	0(0)	1(4.0)
	가구 월수입	100만이상 200만미만	3(11.5)	0(0)
		200만이상 300만미만	6(23.1)	6(24.0)
300만이상 400만미만		12(46.2)	11(44.0)	
400만이상		5(19.2)	8(32.0)	
자녀	연령	만 4세	15(57.7)	13(52.0)
		만 5세	11(42.3)	12(48.0)
	성별	남 아	14(53.8)	14(56.0)
		여 아	12(46.2)	11(44.0)
	출생 순위	외 동 아	4(15.4)	6(24.0)
		첫 째	11(42.3)	6(24.0)
둘 째 세 째		8(30.8)	12(48.0)	
		3(11.5)	1(4.0)	

단 68%), 직업은 대부분이 전업주부였다(교육집단 92.4%, 비교집단 80%). 또한 가정의 월수입을 보면 두 집단 모두 300만원 이상이 많았다(교육집단 65.4%, 비교집단 76%). 자녀의 특성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만 4세(교육집단 57.7%, 비교집단 52%)와 남아가 더 많았고(교육집단 53.8%, 비교집단 56%), 출생순위에선 교육집단은 첫째가 42.3%로 비교집단은 둘째가 48%로 많았다.

3. 측정 도구

CUPEM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 유능감, 그리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어머니의 행동으로 측정되었다.

1)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서혜영(1992)이 번안한 Abidin(1990)의 양육 스트레스 지표/단축형(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역기능적인 부모의 역할수행과 상관있는 부모의 적응상의 문제 영역인 부모의 디스트레스, 부모-자녀 관계 영역인 부

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그리고 아동의 영역인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의 3개 영역별로 12문항씩 총 3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평소 부모 자신이 느낀 바를 생각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 까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5점 척도로써 총점의 범위는 36점에서 18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5이고, 하위 영역별로 얻어진 내적 합치도 계수는 부모의 디스트레스는 .87이고,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은 .88이었으며,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은 .92였다.

2) 부모 유능감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 양육에 대한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번안한 Johnson과 Mash(1989)의 부모 유능감(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척도를 사용하였다. Johnson과 Mash(1989)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17문항을 요인분석하여 한 문항을 제외한 1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부모 효능감 7문항과 부모 만족도 9문항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낮은 두개의 문항을 제외한 14문항, 즉 부모 효능감 7문항과 부모 만족도 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평소 부모 자신이 느낀 바를 생각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 까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5점 척도이고 부모 만족도는 역채점을 하며, 총점의 범위는 14점에서 7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9이고, 하위 영역별로 얻어진 내적 합치도 계수는 부모 효능성은 .82이고, 부모 만족도는 .83이었다.

3) 부모-자녀 상호작용시 부모의 행동 관찰

(1) 상호작용을 위한 활동

부모의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비디오 촬영은 교육실시 전과 후, 그리고 프로그램 종결 후 1개월 후의 총 3회에 걸쳐 각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와의 과제활동과 비구조화된 자유놀이로 나누어 각각 10분씩 총 20분간 관찰되었다. 과제활동은 가로, 세로, 높이가 1.5cm의 입방체의 블록과 그 블록으로 특별한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각기 다른 사진 네 장을 보고 사진의 모양대로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블록을 쌓는 것이다. 비구조화된 자유놀이는 유아와 어머니가 집에 있는 장난감을 선정하여 평상시와 같이 자유롭게 놀이를 하는 것이다.

(2)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의 행동 측정

과제수행과 자유놀이 상황에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어머니

의 행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부모-자녀 상호 작용의 선행연구들(Mahoney & Robinson, 1992; Weinfield, Ogawa, & Egeland, 2002)에 기초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어머니 행동관찰 평정척도를 유아교육학 박사의 안면타당도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 행동은 정서적 지지/애정성과 반응성인데 정서적 지지/애정성 영역은 어머니의 언어나 비언어적인 정서적 지원 및 온정적 표현을 의미하고, 반응성 영역은 아동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 응답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어머니의 행동 특성을 1점에서 7점까지 질적으로 명시한 기술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더 긍정적인 행동을 나타낸 것이다. 아동학 전공 석사 두 명은 과제수행과 자유놀이 상황에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어머니의 행동을 각각 10분 동안 관찰한 다음, 각 상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행동을 7점 척도로 총점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어머니 행동관찰 자료 중 무작위로 선정된 10사례(20%)에 대한 아동학 전공 석사 두 명의 평정자간 신뢰도는 .81과 .92였다.

4. CUPEM 프로그램의 실시

CUPEM 프로그램은 유치원 세 곳에서 주 1회, 2시간씩, 총 10주간 실시되었으며 실시기간은 2005년 3월 2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가 교육을 담당하였다. 각 회기의 프로그램은 해당 유치원 빈교실에서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첫 20분 동안에는 지난 한 주간동안 감사를 느꼈던 사건과 과제를 통한 변화에 대해 파악하였고 1시간 20분 동안은 각 회기의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둔 활동을 하였으며 마지막 20분 동안은 변화에 대한 확인 및 칭찬 그리고 과제를 포함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CUPEM 프로그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양육 스트레스', '부모 유능감' 그리고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의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를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어머니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및 추후검사 점수를 가지고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가 일정기간 유지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육집단의 사후와 추후검사 점수에 대해 paired t-test를 하였다. 또한 통계적인 분석방법으로는 간과되기 쉬운 참여자들의 자기 변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작성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지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평가지의 개

방향 항목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의 응답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으며 폐쇄형 항목은 응답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빈도를 산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 부모 유능감, 그리고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행동 변인들을 검사의 시기별로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해 보고 교육집단 어머니의 해석학적 관점에서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UPEM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 유능감, 그리고 유아와의 상호작용 시 어머니의 행동에 미친 효과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는 CUPEM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집단과 비참여한 비교집단은 양육 스트레스, 부모 유능감, 그리고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행동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가지고 각각 두 집단간의 평균에 대해 t-test를 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교육집단과 비교집단 어머니의 사전검사를 비교해본 결과,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양육 스트레스척도, 부모 유능감척도, 그리고 모-자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행동척도 점수의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등질적임을 가정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이 종결된 직후 실시한 교육집단과 비교집단 어머니의 사후검사의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평균과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마친 직후 교육집단과 비교집단간에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 유능감척도에서 유의했다. 모-자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행동 가운데

과제해결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반응성이, 자유놀이 상황에서는 정서적 지지/애정성과 반응성척도에서 유의한 점수 차이를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교육집단은 비교집단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부모 유능감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고 모-자 상호작용 시 과제해결 상황에서 어머니의 반응성과 자유놀이 상황에서 정서적 지지/애정성과 반응성이 증진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과제수행 상황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애정성은 교육집단과 비교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2.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에게 프로그램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지 또한 세 차례의 관찰시기 중 어느 시기동안 유의하게 변화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 집단 어머니의 점수를 가지고 사전과 사후, 사후와 추후, 그리고 사전과 추후간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교육집단의 시기별 평균을 살펴보면 참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총점, 부모 유능감 총점, 부모 효능감, 부모 만족감, 그리고 모-자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행동 가운데 정서적 지지/애정성과 반응성의 변화는 추후 1개월까지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척도인 부모의 디스트레스, 모-자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및 까다로운 기질은 교육의 효과가 1개월까지 지속되지 않았고 특히 부모의 디스트레스와 까다로운 기질은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참여자의 해석학적 관점에서 본 효과

양적 분석방법으로 간과되기 쉬운 참여자들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작성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지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4>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N=51)

변 인	교육집단(n=26)		비교집단(n=25)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디스트레스	28.15(4.64)	32.68(7.58)	-2.58*	
	모-자 역기능적 상호작용	18.80(3.60)	22.00(3.93)	-3.22**	
	까다로운 기질	22.00(3.92)	26.60(5.17)	-2.29*	
	총 점	71.19(11.76)	86.04(16.83)	-3.08**	
부모 유능감	부모 효능감	25.38(3.07)	22.36(3.62)	3.22**	
	부모 만족감	26.46(3.31)	23.80(3.08)	2.97**	
	총 점	51.85(5.82)	46.16(6.15)	3.39***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의 행동	정서적 지지/애정성	과제해결	3.58(1.30)	3.04(1.33)	1.44
		자유놀이	3.05(0.99)	2.11(0.81)	3.24**
	반 응 성	과제해결	3.38(1.26)	2.63(1.38)	2.03*
		자유놀이	3.35(1.42)	2.00(0.88)	3.53***

*p<.05, **p<.01, ***p<.001

〈표 5〉 교육집단의 검사 시기별 점수의 평균

(N=26)

변 인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paired-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디스트레스	32.85(6.47)	28.15(4.64)	30.58(5.74)	3.24*	
		32.85(6.47)	28.15(4.64)	30.58(5.74)	-2.29*	
	모-자 역기능적 상호작용	21.69(5.77)	18.80(3.60)	19.46(4.04)	1.62	
		21.69(5.77)	18.80(3.60)	19.46(4.04)	2.68*	
	까다로운 기질	25.50(5.76)	22.00(3.92)	24.23(4.44)	-0.76	
		25.50(5.76)	22.00(3.92)	24.23(4.44)	1.93	
	총 점	82.50(15.53)	71.19(11.76)	74.26(10.64)	3.90***	
		82.50(15.53)	71.19(11.76)	74.26(10.64)	-2.46*	
부모의 유능감	기술/지식(효능감)	23.00(3.44)	25.38(3.07)	25.04(3.18)	0.88	
		23.00(3.44)	25.38(3.07)	25.04(3.18)	-3.62***	
	가치/편안(만족감)	24.26(4.49)	26.46(3.31)	26.42(3.25)	0.88	
		24.26(4.49)	26.46(3.31)	26.42(3.25)	4.47***	
	총 점	47.27(7.42)	51.85(5.82)	51.46(5.79)	-2.95**	
		47.27(7.42)	51.85(5.82)	51.46(5.79)	0.09	
모-자 상호작용 시 어머니의 행동	정서적 지지/ 애정성	과제해결	2.58(1.33)	3.58(1.30)	3.12(1.07)	-3.62***
			2.58(1.33)	3.58(1.30)	3.12(1.07)	1.81
		자유놀이	2.13(0.95)	3.05(0.99)	2.74(1.19)	-2.27*
			2.13(0.95)	3.05(0.99)	2.74(1.19)	-3.02**
	반 응 성	과제해결	1.65(0.89)	3.38(1.26)	3.19(1.23)	1.00
			1.65(0.89)	3.38(1.26)	3.19(1.23)	-2.30*
		자유놀이	1.75(0.89)	3.35(1.42)	3.00(1.00)	-6.43***
			1.75(0.89)	3.35(1.42)	3.00(1.00)	1.10
						-5.63***
						-4.47***
						2.02
						-4.71***

*p<.05, **p<.01, ***p<.001

1) 변화에 대한 인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방형 질문으로써 부모교육 참여로 인한 변화를 어머니 본인, 자녀 및 가족으로 구분하여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첫째 어머니 본인에 대한 변화로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김', '여유롭고 편안함', '자녀를 대할 때 감정을 조절하게 됨' 과,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뀜' 등을 언급하였다. 즉, 참여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서 여유로움과 감정조절 및 자신의 행동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자녀의 변화로 '규칙을 정하면 지키려고 노력하고 성취감을 느낌',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짜증이 줄었음' 과, '한계설정으로 자녀의 행동문제를 고쳤음' 등을 언급하였다. 이는 참여 어머니들이 자녀의 문제에 집중하기 보다

는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가족의 변화로 '집안이 화목해진 것 같음', '집안 분위기가 부드러워짐', '남편에게도 정보를 주어 함께 양육을 하게 됨' 과, '아빠도 아이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함', 등을 지적함으로써 변화가 자신과 자녀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전체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1점에서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만족감을 나타낸다. 본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만족정도를 응답하게 한 후 각 항목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빈도를 산출하였다. 질문영역은 부모 교육의 주제에 대

〈표 6〉 참여 어머니의 변화에 대한 인식 (N=26)

응답	응답 내용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김, 여유롭고 편안함 • 일방적인 명령식 훈육에서 대화식 훈육방법으로 바뀜 • 잘한 점을 부각하여 칭찬하게 됨 • 유아기 자녀의 발달을 생각하게 된 점, 관찰하게 됨 • 자녀를 대할 때 감정을 조절하게 됨 • 한계를 설정하고 일관성있게 행동하려고 하는 점 • 자녀와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하고 자녀의 말을 들으려 함 •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뀜 •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됨 • 자녀에게 의식적으로라도 관심을 나타냄 •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문제점을 개선하다 보니 아이의 문제도 해결됨 • 약속과 규칙을 잘 지키 • 규칙을 정하면 지키려고 노력하고 성취감을 느낌 •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짜증이 줄었음 • 한계설정으로 자녀의 행동문제를 고쳤음 • 자녀와의 다툼이 줄었음 • 엄마 말을 잘 듣게 된 것 같음 • 자녀에게 칭찬을 많이 했더니 자신감이 생겼음 • 자녀와 관계가 원만해짐 • 투정이 줄었음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이 화목해진 것 같음; 집안 분위기가 부드러워짐;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함; 인내심이 생겼음 • 아빠는 행복해보임 • 남편에게도 정보를 주어 함께 양육을 하게 됨 • 아빠가 자제하려 함 • 아빠도 아이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함 • 아빠도 자녀양육에 많은 도움을 주려함

한 적절성, 부모교육 내용의 유용성, 프로그램 진행방식의 만족도, 과제의 유효성, 교육자에 대한 만족도, 부모교육을 기다리는 정도, 본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은 정도이었다.

참여 어머니의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7개의 질문 모두에서 참여 어머니들의 96%가 4점 이상을 줌으로써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모든 참여자들은 부모교육의 주제가 적절하고 프로그램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며 강의와 집단 상담 방식의 진행, 과제 및 교육자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교육하는 날을 매우 기다리고 있었고 본 프로그램을 다른 부모에게 추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92%는 100%의 출석률을 보였는데 본 부모교육을 기다는 정도의 평균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다. 결석자의 결석사유로는 참여자나 자녀의 질병, 친지의 방문, 직장 일, 자녀학교의 급식 당번 및 동생의 부탁으로 갑자기 조카를 돌봄 등이었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을 지원하

기 위하여 다학문적으로 접근한 CUPEM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 유능감, 그리고 모-자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양적·질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CUPEM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UPEM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와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부모교육 전에는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모교육을 마친 직후 참여한 어머니는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보다 디스트레스, 모-자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의 총점에서 유의하게 낮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이는 상담적 효과로 어머니가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여 양육실제에서 감정보다는 지적 해결능력을 향상시킨 점(유우영, 최진아, 이숙, 1998), 어머니의 자신감이 증진된 점(김현미 외 1인, 2004), 그리고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도운 점 등이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사료된다.

둘째, CUPEM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와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의 부모 유능감 척도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부모교육 전에는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모교육을 마친 직후 참여한 어머니는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보다 부모 효능감, 부모 만족감, 그리고 부모 유능감의 총점에서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이는 교육적 접근으로 발달에 적합한 실재를 통해 자녀양육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긍정적 방향감과 확신을 갖도록 도운 것이 부모 유능감을 증진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상담적 접근으로 사티어의 성장모델에 의하여 어머니가 기능적인 부모역할을 하도록 돕기 위해 그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한 점과 해결중심 치료에 근거하여 양육상의 문제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자원 발굴과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므로써 어머니가 양육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도운 점이 부모 유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Sanders (1999)는 부모 유능감은 양육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부모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부모 유능감을 신장시킬 수 있다면 그 프로그램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CUPEM 프로그램은 부모교육으로써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CUPEM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와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의 모-자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행동 척도점수를 살펴보면, 부모교육 전에는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모교육을 마친 직후 참여한 어머니

는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보다 자유놀이 상황에서 정서적 지지/애정성과 반응성에서, 그리고 과제수행 상황에서 반응성이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이는 발달에 적합한 실재에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양육행동으로 부모의 반응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점과 자녀의 발달에 대한 지식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반응성을 증진시켰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자유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정서적인 지지/애정성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발달에 적합한 실재에서 유아의 놀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어머니의 행동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제수행 상황에서 정서적 지지/애정성척도에서도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비교집단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녀의 인지 또는 교육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자녀가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애정성을 적극적으로 나타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넷째, CUPEM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에게 프로그램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지 살펴 본 결과, 참여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총점, 부모 유능감 총점, 부모 효능감, 부모 만족감, 그리고 모-자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행동 가운데 정서적 지지/애정성과 반응성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프로그램을 마친 후 나타났고 프로그램을 종결한 1개월 후에도 부모교육전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그 효과가 대체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적일 수 있는 양육문제를 해결 중심 기법을 통해 어머니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다섯째, 참여한 어머니의 해석학적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논의해 보면, 참여한 어머니들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김희진, 2000), 어머니 본인과 자녀 및 가족의 장점 및 자원을 발굴하고, 인정하며, 격려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자신감을 가져 부모역할 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참여 어머니들이 평가한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참여한 어머니들의 96%가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의 모든 항목에서 4점 이상으로 반응하였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점은 참여자의 92%가 100%의 출석률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많은 연구에서 부모교육은 부모의 자발적인 참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출석률이 높았다면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First *et al.*, 1995).

일곱째, 통계적인 분석과 해석학적 평가에서 CUPEM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기여한 점을 살펴

면, 기존의 부모교육과 달리 적극적으로 상담 이론을 적극 활용한 점이 부모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어 어머니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용이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즉 교육적 측면으로 양육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어머니의 욕구를 충족시켰고 상담적 접근으로 교육자의 일방적인 강의나 지시 대신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나누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어머니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직면시키지 않으면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이 어머니들의 긍정적인 변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다음은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발적인 지원자로서 기본적으로 학습에 대한 동기수준이 높으며 교육 참여에 따른 기대 효과로 인해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과장되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선 어머니의 행동이 조작적 정의에 의해 관찰·분석되었으나, 어머니의 행동은 아동의 반응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행동도 동시에 관찰하여 부모의 행동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CUPEM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지속적이며 다각적인 검토작업을 통해 유아 어머니를 위한 교육·발달·상담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권연희(2002).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현미,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희진(2000). 저소득 지역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삼성복지재단 제9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63-195.
- 서혜영(1992).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유우영, 최진아, 이 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정문자, 김은영(2005). 이혼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적 집단치료 모형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3(3), 161-183.
- 정문자, 김진이, 이현주(2005). 이혼 가정의 아동과 어머니의 사회적응을 위한 통합적 집단치료의 효과성 연구.

- 대한가정학회지, 43(6), 145-169.
- Bogenschneider, K., Small, S., & Tsay, J. (1997). Child, parent,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among par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345-362.
- Cervero, R. M., & Kirkpatrick, R. E. (1990). The enduring effects of pre-adult factors on participation in adult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99, 77-94.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oherty, W. J. (1995). Boundaries between parent and family education and family therapy: The levels of family involvement model. *Family Relations*, 44, 353-358.
- Driessen, G. W. J. M. (2003). Family and child characteristics child-rearing factors, and cognitive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3(2), 323-339.
- First, J. A., & Way, W. L. (1995). Parent education outcomes: Insights into transformative learning. *Family Relations*, 44, 104-109.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Johns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Leseman, P., & van den Boom, D. (1999). Effects of quantity and quality of home proximal processes on Dutch, Surinameses-Dutch, and Turkish-Dutch preschoolers's cognitive development. *Infants and Child Development*, 8, 19-38.
- Mahoney, G., & Robinson, C. (1992). Focusing on parent-child interaction: The bridge to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2(1), 105-121.
- Sanders, M. R. (1999).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Towards and empirically validated multilevel parenting and family support strategy for the prevention of behavior and emotional problems in childre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2), 71-90.
- Vig, S., & Kaminer, R. (2003). Comprehensive interdisciplinary evaluation as intervention for young children. *Infants and Young Children*, 16(4), 342-353.
- Weinfield, N. S., Ogawa, J. R., & Egeland, B. (2002). Predictability of observed mother-child interaction from preschool to middle childhood in a high-risk sample. *Child Development*, 73(2), 528-543.

(2006년 2월 28일 접수, 2006년 5월 25일 채택)